



“소리펜으로 매트 누르면 영어 동요·동화 나오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대부분 거실이나 방바닥에 두툼한 매트를 깔다. 아이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증간소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찬 매직에듀 대표는 어느 날 ‘바닥에 까는 매트를 학습장난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당시 커피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그는 바로 사표를 냈다. 그리고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매직에듀를 창업했다. ‘9월의 으뜸중기제품상’을 받은 ‘엘리매트’는 이 회사가 지난 6월 선보인 세계 최초의 ‘소리 나는 학습매트’다.

◆6개 언어, 2500개 교육콘텐츠 매직에듀는 매트 표면에 한글을 비롯해 알파벳과 숫자, 사물과 동물, 색깔, 요일, 동요와 동화, 세계여행 등 2500여개에 달하는 교육 콘텐츠를 넣었다. 매트 속에 이를 담은 OID(optical ID) 코드를 넣었다. 달걀 모양의 소리펜으로 매트를 터치하면 해당 부분에 저장된 콘텐츠가 들린다.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고 소리펜으로 매트 앞장의 알파벳 A 부분을 누르면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에이 ant(개미)’ 등 A와 관련된 영어단어를 읊어준다. 뒷장 세계지도 중 아르헨티나 부분을 누르면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국가(國歌)가 흘러나온다. 지리와 역사, 문화까지 익힐 수 있다.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6개 언어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를 골랐고 국내에 다문화 가정이 많

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베트남어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출시 앞두고 전량 폐기 이 제품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정책과제로 선정돼 1억7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제품 개발과 생산, 마케팅 등에 15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었다. 아이가 매트 위에서 움직이면 움푹 들어가면서 내장된 코드가 잘못 인식되는 일이 생겼다. 이 대표는 “엘리매트에 적용한 OID 코드는 기존 바코드보다 크기가 작아 신축성이 좋은 매트에 인쇄하면 코드가 변형돼 인식이 제대로 안 되기도 했다”며 “오작동을 막기 위해 특수 디자인과 인쇄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2500여개 콘텐츠 담아 숫자·동물·지리·역사 등 6개 언어로 들을 수 있어

터치 인식률 99.8% 中·日서 판매 계약 내년 매출 150억 목표

올해 초 시제품으로 생산한 1000여개 제품을 실험해 보니 콘텐츠 인식률이 98%가 나왔다. 주변에선 “그 정도면 소비자들이 눈치 못 챌다” “일단 내놓은 뒤 문제점을 보완하라”며 관망하고 했다. 이 대표는 며칠간 고민하다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수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1년 이상 직원들과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개발에 매달렸다”며 “제품



이건찬 매직에듀 대표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교육용 매트인 ‘엘리매트’에 앉아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을 폐기하던 날은 회사가 음침바다였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이 대표는 제품을 찍는 동판부터 다시 들여다보며 수정 작업에 매달렸다. 두 달간 밤샘을 한 끝에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인식률을 99.8%까지 높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해의 수출도 청신호 이 대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 피부자극테스트 결과 안전 판정을 받았고 증간소음 시험도 거뜬히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가격은 37만5000원으로 매트 외에 브로마이드 6장과 엘리 캐릭터인형 등을 준다.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해 홈쇼핑, 유아학습용품 대리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매직에듀는 일본과 중국 총판 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곧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올해 매출 15억원을 예상하며 내년엔 15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9월의 으뜸중기제품=△제니컴의 산업용 자외선센서 (042)862-3982 △매직에듀의 학습용 놀이매트 엘리매트 (02)2038-0080 △보배코스메틱의 네크라 시드버터 멀티케어 밤 (070)4814-8146 △스노니아 코퍼레이션의 블루투스 헤드셋 (02)547-7894

비씨월드제약·녹십자MS·휴메딕스... 중소형 제약사 상장 바람

우량 중소형 제약사와 제약사 회사의 코스닥 상장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공개에 통한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비씨월드제약 녹십자MS 휴메딕스 넥스팜코리아 등은 올 하반기와 내년께 상장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매출 300억~600억원대가 예상되는 중소형 규모지만 10%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다.

비씨월드제약은 올 연말께 상장을 목표로 지난 8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304억원, 영업이익 40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3.3%를 기록했다. 흥성한 사장은 “중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과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MS도 상장을 다시 추진하고 있

다. 진단시약 등의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2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외형과 이익 규모를 키워 재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매출은 619억원으로 이번엔 상장을 추진하는 제약사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영업이익은 27억원을 기록했다. 휴온스의 자회사 휴메딕스도 11월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성형제제 필러의 주원료인 히알루론산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235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이 75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성과 높은 이익률이 강점으로 꼽힌다.

개량신약과 천연물 신약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넥스팜코리아는 올해 실적마감 후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광약품이 최대주인 바이오벤처 안트로젠도 주관사를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국내 첫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

국토교통부, 양평에 건립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



국토교통부가 개설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사진)이 14일 개원해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경기 양평에 들어선 국립교통재활병원은 9만㎡ 부지에 304병상 규모(지하 1층·지상 6층)로 지어졌다. 병원은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근골격재활센터, 척추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재활센터 등 4개 장에 유형별 전문진료센터로 운영된다.

진료 대상자는 주로 교통사고 발생 2년 이내 환자로 집중적인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장기요양

대상 환자,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제외된다. 최대 입원기간은 3개월 정도다.

정수교 병원장은 “1일 8시간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환자·가족 등이 포함된 팀 접근 방식의 포괄적 재활의료서비스와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안전화기

획단장은 “국내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약 180만명, 그중 후유 장애인이 2만명에 이르지 만 사고 이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연간 28조원이나 된다”며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재활의료 선진화와 능동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준혁기자 rainbow@hankyung.com

손동창, 퍼시스 대표 복귀

퍼시스는 이종태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손동창(사진)·이종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14일 공시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등기이사로서 활동해 왔다. 퍼시스 측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손회장이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ADT캡스 사장에 최진환 씨

국내 2위 보안업체 ADT캡스는 지난 13일 최진환 전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46·사진)를 신입 사장으로 선임했다. 최 신입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장기신용은행, AT커니 컨설팅메인앤컴퍼니,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지냈다.



서울반도체 신입·경력 공채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와 그 계열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오는 21일까지 신입직원 및 경력직 전문가를 공개 채용한다. 모집부서는 연구개발(R&D), 영업 및 마케팅, 기술, 경영지원 등이다. 외국어에 능숙하거나 해외 체류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 서울반도체는 매출의 약 10%를 R&D에 투자하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적 ‘강소기업’이다.

www.safekorea.com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2014 대한민국 사회안전 박람회

Korea Social Safety Expo 2014

2014.11.12(수) ~ 11.15(토) | 일산 킨텍스 Hall 4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는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해양안전, 범죄예방(정보기반보호, 여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교통안전(자동차·항공·철도), 산업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에 대한 분야를 총 망라한 안전산업의 종합전시회입니다.

참가신청 안내

부스비용	A. 독립부스 180만원 B. 조립부스 210만원 ※VAT별도
할인혜택	· 기존참가업체 20만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60만원 · 기타 중소기업 20만원 ※최대 80만원 할인
전시품목	재난안전, 해양안전, 범죄예방(정보기반보호, 여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교통안전(자동차·항공·철도), 산업안전, 식품안전 등
부대행사	· 세미나 재난관리, 범죄예방, 교통·항공안전, 식품안전, 산업안전 분야 · 교육 재난안전교육, 성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식품안전교육 등 · 홍보관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관 운영 · 체험관 소방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관 등
문의·신청	대한민국사회안전박람회 사무국 TEL 02-360-4517, 4507 / FAX 02-360-4503 / E-mail saferkorea@naver.com

주최 | 안전행정부, 서울특별시,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서울특별시